

신라 文武王의 海洋意識

김창겸*

- I. 머리말
- II. 문무왕의 해양의식 형성 - 통일전쟁과 海戰
- III. 문무왕의 해양의식 실천 - 船府 설치와 護國龍
- IV. 맺음말

국문요약

신라 문무왕의 호국적 해양의식의 형성과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무왕은 삼국 통일과정에서 陸戰은 물론 금강 하구에서 백제부흥군과 왜의 연합세력을 패퇴시킨 白江戰鬪와 나당전쟁시 당 수군의 상륙을 지지하여 한반도 내지에 주둔하고 있던 당 육군에게 군수물자 공급과 이들의 협세를 차단한 서해안에서의 여러 海戰에서 승리함으로써 통일의 완수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해전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삼국통일후 船府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해양 및 불교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해양경험과 해양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해양에 대한 의식은 그가 일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을 화장하여 동해에 散骨하면 왜의 침입으로부터 신라를 지키는 동해 大龍이 되겠다고 유언하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은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고 일본열도로 망명한 백제유민과 왜 세력의 침공을 우려한 강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제어 : 文武王, 海洋意識, 護國精神, 東海龍, 船府.

*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편찬실장.

I. 머리말

신라 문무왕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을 완수하였다. 그리고 죽어서는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龍이 되어 왜의 침입을 막겠다는 遺言을 하였으며, 이것은 이른바 大王岩說話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후대에 문무왕과 대왕암은 호국정신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전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왕암이 문무왕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와 더불어 이것의 진위 논쟁이 제기되었다. 전통적으로는 대왕암이 水中陵說(藏骨處)이나 散骨說(葬骨處)이건 문무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¹⁾ 반면에 문무왕 당대의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倭寇의 침입과 附會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²⁾ 특히 문무왕의 鎮倭說을 사실로 보는 입장과³⁾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⁴⁾ 그럼에도 필자는 이것은 신라 문무왕과 신문왕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⁵⁾ 여기에 후대에 설화적 윤색이 가미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삼국통일과정에서 신라는 백제·고구려 및 당과 많은 전투를 치렀다. 육지에서 전투와 함께 강과 바다에서도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 문무왕은 여러 차례 海戰을 치루면서 海洋의 중요성을 충분히 실감하였다. 더구나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백제유민과 왜의 연합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어려움이

- 1) 국립박물관,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1960; 황수영, 『신라의 동해구』, 열화당, 1994; 정영호, 「석굴 창건과 동해구 신라유적과의 관계」, 『정신문화연구』 48, 1992; 장충식, 「문무대왕의 위적」, 『신라문무대왕』, 경주군, 1994.
- 2) 대표적인 사례로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이 있다.
- 3) 황패강,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75, 250쪽; 武田幸男, 「創寺緣起からみた新羅人の國際觀」, 『中村治兵衛先生古稀記念東洋史論叢』, 362~365쪽; 木村誠, 「文武大王代の對倭關係」, 제18회 신라문화학회 발표문, 1999.8.30.
- 4) 중국과 사이에 용궁(용왕)이 있다는 인식을 일본으로 대가한 것(新川登龜男, 「入唐求法諸相」, 『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佛教』, 吉川弘文館, 1999, 184쪽)에 불과하여 굳이 말하자면 이른바 ‘가상적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다(두창구, 「만파식적고」, 『강원민속학』 7·8, 1990, 20쪽).
- 5)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1981.

있었다. 이러한 이유와 배경에서 문무왕은 통일전쟁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해양과 선박을 전담하는 관부인 ‘船府’를 설치하였으며, 또 왜와 일본열도로 망명한 백제 세력의 침공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강박감이 드디어 그가 죽어서는 나라를 지키는 동해의 龍이 되겠다는 遺言을 하였으며, 그것은 대왕암과 感恩寺를 비롯하여 萬波息笛說話가 승화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문무왕이 이러한 해양의식을 갖게 된 배경으로 신라 삼국통일의 위업을⁶⁾ 이루는 과정에서 있었던 해양을 무대로 했던 해전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통일전쟁 종료후 설치한 해양 전담 관부인 船府에 대해 검토하며, 그리고 문무왕의 遺詔와 大王岩 설화를 통해 호국성이 강한 문무왕의 해양의식이 가진 역사문화적 의미를 밝히겠다.

사실 고래로 삼국통일과 문무왕에 대해 언급한 글이 대단히 많은 까닭에, 여기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사적 분석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본고의 서술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언급하고 인용함을 해량해 주길 바란다.

II. 문무왕의 해양인식 형성 - 통일전쟁과 海戰

1. 백제·고구려 병합과 해전

신라의 해양 진출이 확대된 것은 6세기 중반에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이다.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하였고, 또 唐軍의 지원을 받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이 시기 신라 중앙정계의 중심인물인 金春秋의 아들이요 金庾信의 외조카인 金法敏(문무왕)은⁷⁾ 청년기부터 해양을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진덕여왕대 고구려와 백제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唐으로 들어가서 외교 활동을 하였다.

6) 이명식, 「신라 문무대왕의 민족통일 위업」, 『대구사학』 25, 1984.

7) 문무왕은 신라 제30대 국왕으로(재위 661~681), 성은 金氏, 이름은 法敏이며, 아버지는 태종무열왕 金春秋이고, 어머니는 금관가야 왕족 출신인 金舒玄의 작은딸, 즉 金庾信의 누이 文明王后 寶姬이다. 또 왕비 慈儀王后는 善品の 딸이다.

6월 당에 사신을 보내 백제를 이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비단에 5言詩 太平頌을 써서, 이를 춘추의 아들 法敏으로 하여금 당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 高宗이 이 글을 아름답게 여기고, 법민에게 大府卿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중국 연호 永徽를 사용하였다.⁸⁾

이처럼 김법민은 650년(진덕여왕 4) 당에 사신으로 들어가 탁월한 외교 능력을 발휘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⁹⁾ 당으로부터 大府卿이란 관직을 받아 귀국하였다. 이 일을 통해 김법민은 한반도의 신라를 벗어나 당의 長安을 둘러봄으로써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을 넓힘은 물론, 특히 바다를 건너 당에 들어가도 또 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해양과 해로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였던 것이다.

아버지 태종무열왕(김춘추)이 즉위한 뒤, 波珍滄으로 兵部令을 맡았으며, 얼마 뒤 태자에 책봉되었다. 660년(문무왕 7) 3월 蘇定方이 거느린 13만 대군은 백제를 치기 위해 山東半島의 萊州를 출발하여 黃海를 橫斷하여 마침내 德物島에 이르렀을 때, 김법민은 덕물도로 직접 가서 소정방을 맞이하였다. 즉 김법민은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 정벌 전쟁을 추진할 때에 해양을 통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월) 21일 왕이 태자 법민으로 하여금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德物島에 가서 蘇定方을 맞이하게 하였다. 소정방이 법민에게 “나는 7월 10일 백제 남쪽에 도착하여 대왕의 군사와 만나 義慈의 도성을 격파하려 한다.”고 말했다. … 정방은 기뻐하며 법민을 돌려보내 신라의 병마를 징발하게 하였다. 법민이 돌아와 정방의 군세가 매우 성대하다고 말했다. 왕은 기쁨을 금치 못하고, 태자와 대장군 庾信, 장군 品日, 欽春(春을 純이라고도 함) 등으로 하여금 정병 5만을 거느리고 가서 응원하게 하였다. 왕은 金埃城에 머물렀다.¹⁰⁾

이처럼 김법민은 660년 6월 21일에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¹¹⁾ 德物島에 가서 당 蘇定方과 백제 침공에 대한 군사작전계획을 합의하고 돌아왔으며,

8) 『삼국사기』 권5, 진덕여왕 4년.

9)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11년.

10) 『삼국사기』 권5, 태종무열왕 7년 6월.

11) 당시 신라 수군의 隻數는 동해의 수군을 합하면 150~200척은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이종학, 『문무대왕과 신라해상세력과 발전』, 『경주사학』 11, 1992, 69쪽).

심지어 직접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때 김법민은 太子이자 군사통수의 최고 관직인 兵部令으로서, 山東半島의 萊州(또는 成山)를 출발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의 서해 渡航과 신라 수군의 항해와 전투 능력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바가 컸을 것이다.

더구나 黃海를 건너와 伎伐浦에 상륙한 당군은 황산벌전투를 치루고 炭峴을 넘어온 신라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단기간 내에 멸망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군의 상륙지역이 기벌포라는¹²⁾ 것이다. 태자로서 신라측 최고 군사통솔자였던 김법민은 당군이 기벌포로의 상륙작전을 통해 백제를 멸망시킨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전쟁에서 수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강한 인상과 신라 수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을¹³⁾ 것이다.

한편 김법민은 661년 아버지 태종무열왕이 죽자 이어서 즉위하니, 곧 문무왕이다. 문무왕은 부왕의 뜻을 계승하여 삼국통일전쟁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무왕이 재위한 21년 동안은 백제부흥군, 고구려, 당과 전쟁의 연속이었다. 물론 육지에서 전투도 많았지만, 여러 차례 해전을 치루고, 또 수륙양동작전을 수행하였다.

먼저 백제부흥군과 전쟁과정에서의 신라 수군 및 해전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문무왕이 즉위한 661년에 甕山城과 雨述城에 웅거하던 백제 殘賊을 공격해 항복을 받고 그 곳에 熊峴城을 축조하였다. 한편 백제부흥군은 661년 4월 사람을 보내어 倭에 가 있던 백제왕자 扶餘豐의 귀국을 거듭 요청하여, 9월에 부여풍은 5,000여명의 호위병을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백제부흥군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선, 周留城에 근거를 두고 熊津城을 공격해 신라와 당의 주둔군을 괴롭혔다. 왜는 백제부흥군을 지원하여 662년 1월 무기와 물자를, 5월 170척 함대의 수군을 파견해 주었다. 왜의 지원으로 기세가 강해진 백제부흥군은 복신의 지휘 하에 본부를 任存城에서 周留城으로 옮기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였다.¹⁴⁾

한편 백제부흥군의 저항이 거세지자 당의 熊津都督 劉仁軌는 위협을 느끼

12) 혹은 熊津江口(『구당서』 권83, 열전33 소정방조), 彌資之津(『일본서기』 권26, 제명천황 6년 9월)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으나, 이곳들은 크개는 오늘날 금강 하구로 추정된다.

13) 고경석, 「통일 직후 해양체제의 구축과 해양이념의 고양」, 『한국해양사』Ⅱ, 한국해양재단, 2013, 110쪽.

14) 『구당서』 권199상, 열전 149상,동이 백제전.

고 본국의 당 高宗에게 병력을 증원해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은 右威衛將軍 孫仁師에게 淄州·淸州·萊州의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황해를 건너 출병시켰다. 산동반도를 출발한 孫仁師는 덕물도를 거쳐 熊津府城에 가서 유인원 군대와, 또 신라군과 합세하였다. 손인사가 거느린 군대는 山東 해안 지역에서 선발되었다. 그러므로 당군은 수군이 주력을 이루었다.¹⁵⁾

663년(문무왕 3)부터 신라군의 압박이 강화되자 扶餘豐은 고구려와 왜에 구원병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으나, 663년 3월 왜는 上毛野君稚子が 27,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출병하였다.¹⁶⁾ 부여풍은 白江으로¹⁷⁾ 가서 왜군을 맞이하고 합세하여 진영을 정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수륙양동작전으로 백제부흥운동의 본거지인 周留城을 진격하였다. 문무왕과 유인원 그리고 손인사는 육군을 지휘하여 주류성을 향해 진격했고, 유인개 등은 수군과 군량선을 이끌고 주류성의 앞바다를 향해 진격하였다.¹⁸⁾

한편 왜의 군선 1,000척은 白江에 정박하고 백제부흥군의 정예 기병이 강 언덕에서 군선을 호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백제·왜 연합군은 해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나당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려는 작전을 폈다. 웅진강을 출발한 당의 수군은 663년 8월 17일 백강에 도착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이것이 白江(白江口, 白村江)戰鬪이다.¹⁹⁾ 8월 27일 왜군 선발대와 당 수군이 백강에서 대치하면서 벌어진 제1차 전투에 이어, 8월 28일 제2차 전투가 벌어졌다. 신라와 당의 연합 수군은²⁰⁾ 네 차례의 접전 끝에 백제·왜 연합군을 火攻하여 군선 400척을 불태우는 대승을 거두었다.²¹⁾

15) 김영심, 「신라-당의 황해횡단항로의 연계와 백제·고구려의 멸망」,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576쪽.

16) 『일본서기』 권27, 天智天皇 2년 3월.

17) 白江, 白村江, 白江口에 대해서는 심정보, 「백강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2, 1989; 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김영관, 「백강구의 위치와 백강전투」, 『군사』 65, 2007 참조바람.

18) 『구당서』 권84, 열전34, 劉仁軌.

19) 변인석, 『백제의 최후, 백강구전쟁』, 무공문화, 2015.

20) 당 수군에 신라 수군이 합류하여 편성된 조직이었다(김영관,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5, 197쪽).

21) 한편 나당연합군이 승리한 요인의 하나로서, 신라가 미리 전남 도서 중간기착지들의 배 후지를 점령하고 방화하여 왜군의 진군속도를 지연시키는 작전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

이처럼 백강전투에서는 나당연합군의 수군이 왜의 수군을 대파하였고, 육상에서는 신라군이 백제부흥군을 격파하였다. 문무왕은 김유신 등 28명의 장군과 함께 당에서 파견되어 온 孫仁師의 증원병과 연합해 수륙양공작전을 펼쳐 백제부흥군의 본거지인 주류성을 비롯해 여러 성을 함락하였다.

용삭 3년(663)에 이르러 총관 孫仁師가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부성을 구원할 때, 신라의 병마도 역시 정벌에 참여하였다. 행군이 주류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 왜국의 수군이 와서 백제를 도우려 하였다. 왜선 1,000척이 白江에 머물러 있었고, 백제의 정예 기병들이 강가에서 배를 지키고 있었는데, 신라의 정예 기병들이 중국 군대의 선봉이 되어 먼저 강 언덕의 진지를 쳐부수니, 주류성은 대적할 용기를 잃고 곧바로 항복하였다.²²⁾

아울러 나당연합군이 주류성을 공격하는 수륙병공작전을 펼 때, 수군이 군사와 군량을 탑재한 병선을 운용하였다. 이것은 당시 수군의 주요 임무가 군수물자와 원군의 수송·보급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²³⁾

이어서 신라가 暹受信이 끝까지 항거하던 任存城마저 정복함으로써 백제부흥운동은 종식되고 말았다. 백강전투는 백제와 왜, 신라와 당의 세력이 충돌한 국제전으로 동아시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백제에 구원군을 보낸 왜는 백강전투를 통해 동아시아의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신라는 백강전투를 통해 신라 수군의 실력을 왜의 수군, 당의 수군과의 비교 검증해 볼 기회가 되었다. 게다가 당 수군과의 합동전투를 통해 당 수군이 가진 전술과 무기, 부대편성체계 등을 습득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백제부흥군은 백강전투의 패배와 주류성의 함락으로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다. 그 결과 백제 고지에서 부흥운동은 종지부를 찍기에 이르렀고 당시 백제유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신라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으려면 본토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²⁴⁾ 특히 일본열

다서영교, 「백강구전투와 신라」, 『역사학보』 226, 2015, 56쪽.

2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23) 강봉룡, 「나당전쟁과 해전,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635쪽.

24) 周留城의 扶餘豐, 任存城의 暹受信은 고구려로 망명하였다(『삼국사기』 권28, 의자왕 20년 말미).

도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671년 11월경 백제유민들이 대규모 일본으로 이주하는 일²⁵⁾이 발생하였듯이, 많은 수의 백제 유민이 피눈물 속에 뒷날 고향을 되찾고 신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고국을 등지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²⁶⁾ 그런데 대규모 백제유민들의 일본으로 도망과 이주현상을 지켜본 문무왕에게는 평생 동안 이들의 침공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포괄적으로는 왜의 침입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심으로 정신적 압박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 문무왕은 당과 연합해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우선 문무왕은 즉위하던 해(661) 당의 소정방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함에, 문무왕은 김유신을 비롯한 金仁問·眞珠 등 장군으로 하여금 신라군을 출병시켜 당군의 고구려 공격에 호응하게 하였다.²⁷⁾ 그리고 666년에는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漢林과 三光을 당에 보내 출군을 요청해, 667년 李世勣이 이끄는 당군과 연합해 평양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또다시 668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당군이 新城·扶餘城 등 여러 성을 차례로 공격해 쳐부수고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포위, 공격하자 문무왕도 이해 6월 金庾信·金仁問·金欽純 등이 이끄는 신라군을 파견해 당군과 함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9월 고구려 寶臧王으로부터 항복을 받았다.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신라는 육로로의 공격이 중심이었으나, 아울러 해상과 해군도 최대한 이용하였다.

- ① 乾封 2년(667) 대총관 英國公이 遼東을 친다는 말을 듣고, 나는 漢城州에 가서 그곳에서 병사를 보내 국경에 모이도록 하였다. 신라 군대가 홀로 쳐들어갈

25) 『일본서기』 권7, 천지천황 10년조 참조.

26) 그 예로 664~669년 백제왕 善光를 포함한 백제인 3천여 명 이상이 왜로 이주하였으며, 왜에서는 백제 멸망후 이주한 백제인들에게 관위를 주기 위해 天智天皇 4년(665) 백제국의 고급 계급을 검토하였고(『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4년), 671년(천지천황 10) 백제인들에게 작위를 주었다(『일본서기』 권27, 천지천황 10년 정월). 한편 상당수 백제유민들, 특히 반신라적 인물들은 바다를 통해 遼東을 거쳐 당으로 이주하였다(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64쪽).

27) 대동강을 통해 고구려의 平壤城을 공격하던 소정방의 당군이 淵蓋蘇文의 거센 항전으로 고전하자, 662년 김유신을 비롯한 9명의 장군으로 하여금 당군에게 군량까지 보급하게 했으나 소정방은 물러가고 말았다.

수 없어서 우선 세 차례 첩보병을 보내고, 배를 잇달아 띄워서 중국 군대의 상황을 살피도록 하였다. 첩보병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중국 군대가 아직 평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기에, 우리는 우선 고구려의 七重城을 쳐서 길을 열어 통하게 해놓고, 중국 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였다.²⁸⁾

- ② 건봉 3년(668) 대감 金寶嘉를 시켜 바닷길로 들어가 英公의 명령을 받아오도록 하였는데, 그가 신라 군사는 평양에 모이라는 분부를 받아 왔다.²⁹⁾

신라는 고구려 공격을 위해 군대를 국경지대인 漢山州에 주둔시키고 당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때에도 신라는 선박을 이용하여 서해 바다에 첩보병을 보내어 당군의 도착을 살피며 공격 시기를 맞추고 있었다. 심지어 신라는 大監 金寶嘉를 시켜 서해 바닷길로 들어가 李世勣으로부터 군사협력 명령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에도 당군과 공동작전을 펴면서, 수군을 최대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는 이미 백제 멸망시에 당 수군의 역할을 경험한 바 있기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공격할 때에도 당의 수군과 보조를 맞추었으며, 그것이 서해상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신라는 고구려 침공에도 해양과 당 수군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또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 나당전쟁과 해전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당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달리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당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치루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지에서 전투와 함께 해전이 갖는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이른바 나당전쟁은 670년 3월 신라의 薛烏儒가 고구려 유민 高延武와 함께 압록강 넘어 遼東으로 진출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676년까지 7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전투를 치렀다. 당은 670년 高侃·李謹行의 行軍을 편성하였고, 671년 薛仁貴의 熊津都督府 구원군을 파견하였으며, 674년 劉仁軌의 추가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당군은 675년 買肖城

28)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29)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戰鬪에서 패배함으로써 대세가 기울어졌고, 마침내 676년 伎伐浦 전투를 끝으로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나당전쟁에서는 초기 高侃·李謹行의 육군이 遼東을 거쳐 한반도로 투입되었으나, 671년 설인귀의 웅진도독부 구원군은 해로로 투입되어 상륙전을 감행하였으며, 674년 편성되는 劉仁軌의 신라원정군 다수도 海路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675년 買省城戰鬪에 앞서 이와 연계된 당 수군의 공격으로 泉城戰鬪가 있었으며, 676년 伎伐浦戰鬪 또한 당 수군의 상륙전을 수반한 전투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지금부터는 나당전쟁시 여러 해전에서 문무왕을 비롯한 신라인들이 경험한 해전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라가 당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에는 육전에서 승리와 함께 해전, 수륙합동전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야기된 바가 많다. 그 사례를 들면 문일평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唐兵과 交戰한지 前後 7년 동안에 百濟 故地에서와 高句麗 舊疆에서 水陸 大결전이 여러번 연출되었다.³¹⁾
- ② 문무왕 十一年 辛酉에는 신라가 公然히 唐兵을 石城에서 격파하니 이로부터 무릇 六七年 동안에 百濟 故地에서와 高句麗 舊境에서 여러 번 水陸大戰이 연출된 바 그 결과는 흔히 신라측이 유리하게 되었고 최후에 가서는 大小 二十二戰에 모두 신라가 全勝하였는데 이후에는 唐兵이 다시 來犯하지 못하였으므로 신라통일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 셈이다. 이해가 곧 文武王 十六年 丙子이다.³²⁾

사실 나당전쟁시 전투는 육지에서도 있었지만 바다와 강에서도 중요한 대전이 벌어졌다. 당시 당군은 육지로 침공도 했지만, 보다 이동과 운송이 유리한 해로로 수군을 동원하여 공격하였다.³³⁾ 그리하여 신라는 당 수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하였다.

30)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병력운용과 전후수습책」, 『중국사연구』 55, 2008, p.72 주77.

31) 문일평, 「掌篇新羅史 - 신라의 통일과 및 그 성운」, 『조광』 1-1, 1935.11.

32) 문일평, 「丙子를 통해 본 朝鮮 - 新羅가 半島서 唐兵擊退(1)」, 『조선일보』 1936.1.3.

33) 서영교, 「나당전쟁사연구」, 아세이문화사, 2006, 221~238쪽.

總章 원년(668) … 또한 ‘당나라가 배를 수리하면서 길으로는 왜국을 정벌한다고 하지만 실은 신라를 치려는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니, 백성들이 듣고서 놀라고 겁을 내면서 불안해 하였다.³⁴⁾

이처럼 당 수군과 선박의 움직임에 신라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더구나 669년에 백제부흥군이 ‘신라가 반역한다.’고 당에 거짓으로 알렸다. 이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반역할 뜻이 없음을 해명하고, 곧 백제고지를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문무왕은 670년 品日·文忠 등이 이끄는 신라군으로 하여금 63개 성을 공격해 빼앗도록 했으며, 그 곳의 인민을 신라의 영토로 이주시키고, 天存 등은 7개 성을, 軍官 등은 12개 성을 함락시켰다. 신라군은 이 과정에서 백제고지에 주둔한 당군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러자 당은 엄청난 수의 선박과 군사를 동원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가 백제부흥군을 진압하면서 백제고지를 영토화해 나감에, 당은 대군을 파견하여 신라를 치고자 하였다.

咸亨 원년(670) … 당에서는 한 명의 사신을 보내어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서 곧바로 우리의 터전을 뒤엎고자 수만의 군사를 보냈으니, 병선은 푸른 바다를 덮어 배의 머리와 꼬리가 강어귀에 줄을 이었다.³⁵⁾

당은 한반도를 차지하고자 서해 바다를 덮을 듯한 병선을 보내어 錦江 하구에 이르렀던 것이다. 백제고지를 차지하고자 파병된 당군은 바다를 건너와 한반도에 상륙해야 했기에, 신라로서는 해전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당 수군의 침입을 방어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신라는 백제 사비성의 함락과 백제부흥군 진압시에 당의 수군이 상륙함으로써 백제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에 신라는 나당전쟁을 치루면서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다. 당의 수군이 상륙하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당의 육군에게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또 이들이 합세하는 세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작전을 폈다. 신라는 나당전쟁과정에서 서해상으로 침공하는 당군에 맞서 치룬 여러 차례 전투에서 당시 신라의 수군은

34)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35)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

매우 힘들고 버거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이것에 대한 해결책, 즉 문무왕과 신라인들이 가졌던 당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물리치려는 의식은 마침내 초월적 존재인 佛力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때 당나라의 遊兵과 여러 將兵들이 鎭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신라를 치려했으므로 왕이 이를 알고 군사를 내어 쳤다. 이듬해 唐 高宗이 仁間 등을 불러들여 꾸짖기를, "너희가 우리 군사를 청해다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우리를 침해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하고 이내 圓扉에 가두고 군사 50만 명을 훈련하여 薛邦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치려고 했다. 이때 義相法師가 留學하러 당나라에 갔다가 인문을 찾아보자 인문은 그 사실을 말했다. 이에 의상이 돌아와서 왕께 아뢰니 왕은 몹시 두려워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놓고 이것을 막아 낼 방법을 물었다. 角干 金天尊이 말했다. "요새 明朗法師가 龍宮에 들어가서 秘法을 배워 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명랑이 말했다. "狼山 남쪽에 神遊林이 있으니 거기에 四天王寺를 세우고 道場을 開設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보고한다. "당 군사가 무수히 우리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돌고 있습니다." 왕은 명랑을 불러 물었다. "일이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어찌 하면 좋겠는가." 명랑이 말한다. "여러 가지 빛의 비단으로 절을 假設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채색 비단으로 임시로 절을 만들고 풀로 五方의 神像을 만들었다. 그리고 瑜伽의 明僧 12명으로 하여금 명랑을 우두머리로 하여 文豆婁의 秘法을 쓰게 했다. 그때 당 군사와 신라 군사는 아직 交戰하기 전인데 바람과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서 당나라 군사는 모두 물속에 침몰되었다. 그 후에 절을 고쳐 짓고 四天王寺라 하여 지금까지 壇席이 없어지지 않았다. 國史에는 이 절을 고쳐 지은 것이 調露元年 己卯(679)의 일이라고 했다. 그 후 辛未(671)에 당나라는 다시 趙憲을 장수로 하여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으므로 또 그전의 비법을 썼더니 배는 전과 같이 침몰되었다.³⁶⁾

의상의 귀국시기는 대체로 670년(문무왕 10)으로 보고 있다.³⁷⁾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당시 貞州 사람이 달려와 "당 군사가 수없이 우리나라 국경에 이르러 바다 위를 돌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貞州는 오늘날 임진강 어구의 황해도 풍덕지역에 해당한다. 이곳에 당군이 왔다는 것은 당군이 신라를 침공하고자 서해를 건너와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위협을 느낀 신라 문무왕은 명랑법사에게 佛力, 즉 文豆婁秘法을 쓰게 하

36)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

37) 이호영, 「대당전쟁」, 『신편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여 당군을 서해 바다에 沈沒시켰다고 한다. 이렇듯이 문무왕의 국가수호는 불교신앙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태풍의 도움으로 신라의 해군이 승리한 것을 불교 색채를 가미하여 설화화한 것이다.

671년(문무왕 11) 정월 신라는 군사를 출전시켜 백제를 공격하여, 웅진 남쪽에서 전투를 하였다. 또 신라는 당군이 백제를 구원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大阿飡 眞功 등을 보내 금강 하류의 서해안에 위치한 甕浦를 지키게 하였다.³⁸⁾ 그러나 당군은 옹포를 지키던 신라의 수군을 물리치고 기벌포를 통해 백제 내지로 진입하였다.³⁹⁾ 671년 6월 竹旨 등이 石城戰鬪에서 당군 5,300명을 죽이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에 7월 26일 설인귀는 글을 보내 “본인 설인귀의 병선은 돛을 펴고 깃발을 달아 북쪽 해안을 순시하면서도, 예전에 받은 신라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차마 병사를 풀지 않았는데, 왕은 도리어 외부의 원조를 믿고 나와 대적하려 하니, 이것은 어찌된 잘못인가”라고 항의하였다. 다시 말해 당의 설인귀가 이끄는 수군은 북쪽 서해 바다를 순시하면서 신라를 위협하고 있었다. 비록 당이 신라에게는 신라를 위한다는 핑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신라를 침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신라인들은 이러한 당의 행위에 위협을 느끼었으며, 당에 강하게 대적한 것이다. 薛仁貴의 항의에 대해 문무왕은 신라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글을 보냈다.⁴⁰⁾

이처럼 문무왕은 당의 설인귀가 이끄는 수군의 침입에 위협을 느끼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당의 수군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671년 9월에는 당 장군 高侃 등이 변병 4만을 거느리고 평양에 도착하여,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고 대방을 침범하자, 신라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10월 6일 당의 선박을 공격하였다.

38) 1월 신라가 당 구원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옹포에 수비케 한 것은 군량을 실은 함대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6월 가림성의 벼를 깃밟은 것은 백제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에 대한 군량 등 군수물자의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강봉룡, 앞의 논문, 637쪽).

39)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52쪽.

40)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7월 26일. 답설인귀서에 대해서는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 ;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역사문화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참조.

문무왕 11년(671) 겨울 10월 6일, 당 나라 수송선 70여 척을 공격하여, 郎將 鉗耳大侯와 군사 100여 명을 사로잡았다.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루 셀 수 없었다. 이 싸움에서 緞漚 當千의 공로가 첫째이므로 沙漚의 관등을 주었다.⁴¹⁾

당천을 비롯한 신라 수군은 당의 漕船 70여 척을 공격하여 많은 당 수군을 수장시키고 낭장 겸이대후를 비롯한 100여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다. 즉 신라군이 당의 설인귀가 웅진을 공격하고자 수군을 금강 입구에 정박시키려는 것을 대파한 것이다. 신라가 당이 해로를 통하여 수십 척의 운송선을 보내 무기와 군량을 보급하려는 것을 저지한 사건으로, 나당전쟁에서 중요한 전과를 거둔 해전의 하나이다. 그리고 672년(문무왕 12) 7월 당의 高侃이 군사 1만, 李謹行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동시에 평양에 와서 8개의 군영을 짓고 주둔함에, 8월 신라는 韓始城과 馬邑城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또 당은 군대를 진군시켜 白水城에서 500여 步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설치하였다. 신라는 고구려군과 연합하여 그들과 격전을 벌여 수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고간 등이 퇴각하자, 이를 추격하여 石門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漢山州에 晝長城을 쌓고, 어쩔 수 없이 672년 9월에 문무왕은 전년에 사로잡아 두었던 당의 兵船 郎將 鉗耳大侯, 萊州司馬 王藝, 本烈州長史 王益 등과 병사 170명을 돌려보냈다.⁴²⁾

문무왕은 다른 한편으로는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서해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았다.

문무왕 13년(673) 9월 ... 임금이 대아찬 徹川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 당의 병사가 말갈과 거란의 병사와 함께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9차례 싸워 우리 병사가 승리하였다. 2,000여 명의 목을 베었고, 당의 병사 중 瓠瀟와 王逢 두 강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⁴³⁾

문무왕은 673년 철천에게 한반도 서해안을 지키게 하여 당 수군의 침략에 대비함으로써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신라는 육지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 당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승리의 이유는 신라가 육군을 보강하

41)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1년 10월.

4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2년 9월.

43)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3년 9월.

는 한편 서해를 철저히 방비하여 당 수송선의 상륙을 저지하면서 군량과 무기의 보급을 차단한 상황에서 당의 육군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⁴⁴⁾ 것이라 보겠다.⁴⁵⁾

675년 나당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675년 2월 劉仁軌는 당의 船軍으로 七重城을 공격하였다. 칠중성전투는 당의 船軍을 이용하여 신라의 교두보를 공격한 것이다. 또 말갈병을 보내 바다로 가서 南境을 공략하도록 하였다.⁴⁶⁾ 특히 675년 9월에는 泉城에 주둔한 신라군은 설인귀 함대의 포위를 받았으나 도리어 반격하여 승리하였다.

9월 설인귀가 … 風訓을 길잡이로 삼아 천성을 쳐들어 왔다. 우리 장군 文訓이 맞아 싸워 이겨서 1,400명을 목 베고 병선 40척을 빼앗았으며 설인귀가 포위를 뚫고 도망감에 전마 1,000필을 얻었다.⁴⁷⁾

설인귀는 당시 당에 숙위하고 있던 신라인 風訓을 안내자로 삼아 泉城에 쳐들어와 상륙하고자 함에 신라 장군 文訓이 1,400명을 죽이고 병선 40척, 전마 1,000필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다. 천성에 대해서는 白水城·泉山과 함께 동일지역인가와 또 천성의 위치 비정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천성전투는 海戰으로 이해된다.⁴⁸⁾ 사실 천성전투에서 대패한 당의 설인귀 군대는 보급선단과 그것을 호위하는 전함으로 이루어졌기에⁴⁹⁾ 수군부대로 보겠으며, 이 전투는 신라 수군이 승리한 해전이었다. 이어 신라군은 9월 29일 李謹行이 당의 20만명 대군을 이끌고 주둔하고 있던 買肖城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해 이들을 물리쳤으며, 말 30,380필을 얻고 그

44) 고경석, 앞의 논문, 2013, 110쪽; 강봉룡, 앞의 논문, 638~639쪽.

45) 나당전쟁기 당군은 군사작전은 물론 군량 등 군수물자의 보급까지도 스스로 해결했다. 신라는 이러한 당군의 약점을 노렸다. 적극적으로 해전을 수행하여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시키고 지원군과 군수물자의 수송, 보급을 차단함으로써, 이미 주둔해 있던 당 육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폈다(강봉룡, 앞의 논문, 635쪽).

46) 이것은 劉仁軌가 이끈 군대가 船兵을 동원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윤경진, 「매소성 전투와 나당전쟁의 종결」, 『사립』 60, 2017, 168쪽).

47)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 9월.

48) 민덕식, 「나당전쟁에 관한 고찰」, 『사학연구』 40, 1989, 429쪽.

49) 서영교, 앞의 책, 2006, 234쪽.

밖의 많은 수의 병기를 획득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임진강과 한강의 합류 지점에 있었던 천성해전과 임진강 중상류의 貫肖城戰鬪의 승리는 북쪽 육로를 통한 당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당 수군과 군수물자의 상륙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과의 합세를 차단함으로써 거둔 신라의 승리였다. 결과적으로 매소성전투는 나당전쟁에서 실질적 승패를 가른⁵⁰⁾ 결정적인 水陸戰鬪라 하겠다.

한편, 泉城海戰에서 참패한 설인귀는 水軍으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해로로 계속 남하하여, 드디어 676년 伎伐浦를 공격해 왔다.⁵¹⁾

11월 沙飡 施得이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귀와 所夫里州 伎伐浦에서 싸웠으나 크게 패하였다.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차례 싸움에서 승리하고 4,000여 명을 목 베었다.⁵²⁾

비록 신라군은 처음에는 설인귀에게 패했지만, 결국은 沙飡 施得이 지휘하는 신라 수군은 당군을 대파하였다.

기벌포에서 금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 도성과 직접 연결되며, 금강은 병력의 수송과 군수물자의 보급로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백제 도성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강 하구의 기벌포를 장악해야만 했다.⁵³⁾ 보다 앞서 660년 7월 당과 신라연합군이 백제의 도성 泗泚城을 공격하여 함락할 때에도 기벌포는 요충지로서 중요시된 바 있다. 백제 成忠이 의자왕에게 올린 상소에서 “만약 다른 나라의 군사가 오면 육로로는 험한 沈峴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伎伐浦의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⁵⁴⁾ 기록이 있다.

50) 서영교, 앞의 책, 228쪽;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205쪽; 윤경진, 앞의 논문, 2017.

51) 비록 『삼국사기』에는 기벌포전투가 676년 11월에 기록되어 있으나, 671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다(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2, 吉川弘文館, 1951, 464~484쪽).

52)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6년 11월.

53)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56쪽 주55. 이런 이유로 660년 소정방이 상륙한 지점과 663년 백강전투시 상륙을 나당연합군이 상륙을 시도한 곳도 기벌포 지역이었다고 보겠다. 한편 기벌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상훈, 앞의 책, 228~242쪽 참조.

54)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16년 3월.

당의 수군이 기벌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하여 이곳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興首도 “白江(혹 伎伐浦라고 한다)과 炭岷(혹 沈岷이라 한다)은 우리나라의 요충지이다. … 당군이 백강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이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⁵⁵⁾ 하였다.

신라 문무왕은 백제를 멸망시킬 때 당군이 기벌포에 들어오면서 사비성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로서는 기벌포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당군의 기벌포로 공격과 상륙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하여 싸웠다. 그 결과 22번 싸워 이기고 4,000여 명을 죽이는 전과를 거두었다.

기벌포해전에서 신라군은 당군과의 전투에서 樓船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접전도 물론 발생하였지만 소규모 병선을 이용한 게릴라식 전투도 적잖이 발생하였다.⁵⁶⁾ 그런데 기벌포해전에서 신라군이 사살한 당군의 수가 4,0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벌포 일대로 집결하던 당 잔류군과 옛 백제군을 비롯한 반신라적 백제유민도 상당수가 포함되었을 것이다.⁵⁷⁾

기벌포해전에서 대패하자 백제고지에 주둔해 있던 당군은 모두 철수하였다.⁵⁸⁾ 다시 말해 신라가 기벌포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서해에서 제해권을 상실하였고,⁵⁹⁾ 한반도에서 당의 군사적 위치는 추락하였다.⁶⁰⁾ 그 결과 신라는 당으로 하여금 재침략 의지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였다. 이처럼 기벌포해전은 나당전쟁을 종결하는 의미를 지닌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의 승리는 당으로 하여금 한반도를 점령 통치하려는 생각을 포기케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쳐,⁶¹⁾ 마침내 영토 화하려는 야욕을 확실하게 꺾었다. 이로써 신라는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당은 어쩔 수 없이 676년 安東都護府를 평양으로부터 遼東城으로 옮겼다. 이로써 신라는 통일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의 통일전쟁은 육지에서 승리도 중요했지만, 백제부흥군 및 당군과의 바다에서 직접간접 전투의 승리, 또 해로를 이용해

55) 『삼국사기』 권28, 의자왕 20년 5월.

56)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65쪽.

57) 이상훈, 앞의 논문, 2007, 26쪽.

58) 서인환,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150~152쪽.

59)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 2, 1985, 10~11쪽.

60) 노태돈, 「나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14쪽.

61) 이종학, 「신라삼국통일의 군사적 고찰」, 『군사』 8, 1982, 196쪽.

당군의 육지에서 전투를 위한 군수물자의 수송을 차단한 해양군사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통일전쟁 과정에서 문무왕은 자신이 직접 해양을 통한 활동과 경험을 하였고, 또 해양에서 전투를 신라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지휘하고 지켜보았다.⁶²⁾ 그리하여 문무왕은 이미 생전에 바다(해양)에 대해 관심이 매우 컸고,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였다.

Ⅲ. 문무왕의 해양인식 실천 - 船府 설치와 護國龍

1. 船府 설치

신라는 중고기에 이르러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하면서 적극적인 해양활동을 전개하였다. 467년(자비왕 10) 담당 관부에 명하여 戰艦을 수리하도록 하였고,⁶³⁾ 505년(지증왕 6)에는 선박 이용의 제도를 정하였다. 더구나 512년(지증왕 13) 何瑟羅軍主 異斯夫가 동해상의 于山國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532년(법흥왕 19) 해상왕국 金官加耶를 병합하고, 또 562년(진흥왕 23) 大加耶를 멸망시킴으로써 이들의 선박 건조와 항해 기술이 신라로 유입되어 급격한 해양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다.⁶⁴⁾ 아울러 553년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하고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서해로의 해양진출이 본격화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해 바다를 이용해 동북방면으로 더욱 북상해 556년(진흥왕 17) 比烈忽州를 설치하고 沙飡 成宗을 군주로 임명하였으며, 곧이어 함흥지역까지 진출하여, 568년에는 黃草嶺과 磨雲嶺에 眞興王巡狩碑를 건립하였다.

특히 553년 신라는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주로 黨項城을 서해 진출의 거점 기지로 삼아 적극적으로 중국의 南朝와 北朝와 교류하였다. 신

62) 660년 백제토벌전에 대자로서 직접 참전한 이래 문무왕은 재위 동안 있었던 주요 전쟁에 참가하여 최고군통수권자로서 전쟁을 지휘하고 포상과 처벌을 시행하였다(이문기, 「신라 문무왕대의 군사정책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32, 2004, 189쪽).

63) 『삼국사기』 권3, 자비마립간 10년.

64) 김창겸,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 101, 2011, 68쪽.

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대중국사신을 파견하지 못하고, 백제의 사신을 따라, 또는 고구려의 사신을 따라서 통교를 하다가, 드디어 한강유역을 비롯한 경기만 일대를 장악한 뒤에는 남쪽 백제와 북쪽 고구려의 방해로 피해야하면서 나름대로 대중국항로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중국의교를 통한 외교활동이 한층 확대되자 수군과 선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583년(진평왕 5) 兵部 내에 선박과 해양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船府署를 설치하고,⁶⁵⁾ 여기에 大監과 弟監 각각 1인을 소속시켰다. 그러나 이때 선부서는 아직까지는 독립된 관부가 아니라 군사적 목적에서 병부의 지휘를 받는 관부였다.

이 무렵 중국 대륙에서 수·당의 교체와 더불어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마침내 6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삼국 간 역학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신라에 대한 백제의 공세가 매우 격심해져 642년에는 신라의 서변 40여 성을 함락되었다. 특히 백제와의 전략상 요충지인 大耶城이 함락되었는데, 이때 金春秋의 사위인 金品釋과 딸 古陀炤娘이 죽임을 당하였다. 더구나 643년 11월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작전으로 신라의 黨項城을 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라에게 당항성은 당과 통교하는 중요한 해양거점이고 기지였다. 그러므로 신라는 이곳을 상실하면 당과의 교통로가 막히게 되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게 되자,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와 백제군을 물러가게 하였다. 이러한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 연합에 의한 신라 당항성 공격은 아마도 해상항로를 봉쇄하려는 전술로 이어진 듯하다.⁶⁶⁾

이것은 648년 김춘추가 당에서 귀국할 때 고구려 수군이 항로를 차단하고 김춘추 사행단을 공격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신라가 당과 맺은 나당동맹을 방해하려는 군사적 행동이었다. 결국 이제는 삼국간의 전투무대가 육지에서 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645년 당이 고구려의 遼東을 공격한 이후에는 국제관계가 고구려—백제—왜, 당—신라의 양진영으로 형성되고, 그 결과 서해 바다를 무대로 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65) 『삼국사기』 권4, 진평왕 5년.

66) 임기환, 「7세기 발해·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세계의 갈등」,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528쪽.

의 많은 국가와 세력들이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660년부터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는 과정과, 또 이후 신라가 한반도 전체를 영역화하려는 당 세력에 맞서 이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많은 해전을 치루면서 문무왕은 제해권 장악의 필요성은 물론 해양과 선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663년(문무왕 3)에 船府卿 2인을 두었다.⁶⁷⁾ 아마 선부경 2인은 국가 소유는 물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해양업무를 맡았을 것이다.

더구나 신라는 나당전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큰 해전을 치루면서 軍船과 모든 선박이 동원되었을 것이며, 특히 663년 백강 입구와 676년 기벌포에서 치룬 치열한 해전에서 신라의 선박들이 크게 망가졌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했고,⁶⁸⁾ 또 새로운 선박의 건조와 더불어 선박과 해양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신라 정부는 선박과 해양을 관리하는 중앙 관부를 설치하였다.

- ① 문무왕 18년(678) 봄 정월, 船府令 1인을 두어 선박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左右理方府에 卿을 각 1인씩을 더 두었다.⁶⁹⁾
- ② 선부 : 예전에는 兵部의 大監과 弟監으로 하여금 선박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문무왕 18년에 선부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경덕왕 때 그 명칭을 利濟府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이전 명칭으로 회복시켰다. 여기에는 令 1명을 두었는데, 관등은 大阿湊으로부터 角干까지이다. 卿 2명을 문무왕 3년에 두었는데, 신문왕 8년에 1명을 증원하였다. 관등은 조부의 卿과 동일하다. 大舍는 2명인데 경덕왕 때 그 명칭을 主簿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대사라고 하였다. 관등은 조부의 대사와 동일하다. 사지는 1명인데 경덕왕 때 사주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 다시 사지라 하였다. 관등은 조부의 사지와 동일하다. 사는 8명인데 신문왕 원년에 2명을 증원하였고 애장왕 6년에 2명을 감하였다.⁷⁰⁾

문무왕은 통일전쟁이 종료된 직후인 678년 정월에 船府令을 둠으로써, 선부라는 독립된 관부를 설치하였다. 이에서 보건대, 병부 설치 이전에는 군사

67) 『삼국사기』 권6, 문무왕 3년.

68) 이에 대해서 2017년 7월 7일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장에서 서영교(중원대학교 교수)의 교사가 있었다.

69) 『삼국사기』 권7, 신문왕 18년.

70)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적 업무와 함께 선박에 대한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담당(1단계)하다가 516년(법흥왕 3년)경 병부가 설치되어 병부에서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2단계). 그리고 583년 별도로 선부서가 설치되어 대감과 제감이 선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3단계), 통일전쟁이 종료된 직후에 678년(문무왕 18) 문무왕이 선부령을 설치하고 선부로 승격시켜 독립 부서로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4단계).⁷¹⁾

그러면 문무왕이 통일전쟁이 종료된 직후에 선부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아무래도 통일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한반도를 무대로 한 신라와 백제·고구려 간의 통일전쟁에 바다 건너 당과 왜가 참전하여 동북아 국제전으로 확대되고, 특히 이들 간의 전투는 육전보다는 해전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 더욱이 백강전투와 기벌포전투를 치루면서 신라는 물론 왜와 당에게도 바다에서의 주도권 경쟁, 이른바 제해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문무왕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이동 수단인 선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져 선박과 해양을 전담할 선부를 설치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선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연구자들은 선부를 신라 수군과 연계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선부가 신라의 수군을 관장하는 부서였는가 하는 문제이다.⁷²⁾ 舟楫을 관장하였다고 하니 선박과 해양 관련 업무를 전담한 것은 물론이고, 아마 이와 관련된 일부 수군도 운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전체 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兵部이지만, 선부에도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수군과 기술병이 배속되었고, 이들을 관장하였을 것이다.⁷³⁾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661년 즉위한 문무왕은 삼국통일전쟁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전을 치루면서 해양은 물론 선박과 수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백강전투가 치열했던 663년(문무왕 3) 선부서에

71) 강봉룡, 「문무대왕의 선부(船府) 설치와 신라선」,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2』, 2017, 58쪽.

72) 井上秀雄이 진평왕대에 선부서를 설치한 것이 신라의 군제에서 별도 水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이후(『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따르는 실정이다.

73) 그러므로 수군을 독립시켜 선부에 속하게 하였다거나, 선부가 수군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경석, 앞의 논문, 2013, 114~115쪽).

卿 2인을 두어 선박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678년(문무왕 18) 선부서를 병부로부터 완전히 독립 승격시켜 船府라 하고, 장관 船府丞을 두었던 것이다.

결국 선부는 통일전쟁 중 여러 차례의 크고작은 해전을 치루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들이 파손되었거나 또는 건조한지 오래되어 노후된 선박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한편으로는 향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쟁과정에서 습득한 우수한 기술을 적용해 훌륭한 성능을 갖춘 새로운 선박을 제조하였을 것이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군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로써 종전 군사적 업무에 한정되었던 선부서의 업무가 민간을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해양업무를 맡게 되었다.⁷⁴⁾

2. 대암왕 설화와 해양의식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완수한 위대한 영주라는 평가와 함께 호국의 상징으로 숭배되었다. 文一平은 문무왕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新羅의 疆域은 辰韓地에 始起하니, 今 慶州가 卽 肇基 訶지라. … 文武王 麗濟를 併有함이 三面은 際海訶고 西北은 溟江以南의 地를 有訶지라.⁷⁵⁾

이처럼 문무왕이 고구려와 백제를 병합함으로써 신라가 드디어 삼면의 바다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은 문무왕의 위업이라 하였다.

高裕燮은 문무왕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다음과 같이 찬미하였다.

경주에 가거든 文武王의 偉蹟을 찾으라. 구경거리의 경주로 쏘다니지 말고 문무왕의 精神을 기려 보아라. 太宗武烈王의 偉業과 金庾信의 勳功이 크지 아님이 아니나 이것은 文獻에서 도 우리가 기릴 수 있지만 문무왕의 위대한 정신이야말로 경주의 유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니 경주에 가거들랑 모름지기 이 문무왕의 유적을 찾으라. 乾川의 富山城도 南山의 新城도 安康의 北兄山城도 모두 문무왕의 國防의 經營이요, 鳳凰臺의 高臺도 臨海殿의 雁鴨池도 四天王의 護國刹도 모두 문무왕의 政經的

74) 권덕영, 「삼국시대 신라의 해양진출과 국가발전」, 『Strategy21』 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207쪽.

75) 「지리」1, 『대한자강회월보』 3, 1906년 9월 25일 간행.

治績 아님이 아니나, 무엇보다도 경주에 가거든 東海의 大王岩을 찾으라.⁷⁶⁾

흥미로운 것은 문무왕의 대표적인 정신으로 護國思想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이 특히 해양과 불교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다. 다시 말해 문무왕은 해양을 매개로 한 호국정신과 불교숭배의식이 매우 각별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스스로 유언하기를 화장하여 동해 바다에 散骨하면 자신이 신라를 지키는 동해의 龍이 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 ① 가을 7월 1일 왕이 별세하였다. 시호를 文武라 하고 여러 신하들이 유언에 따라 동해 어귀 큰 바위에 장사지냈다. 俗說에 전하기를 왕이 용으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바위를 大王石이라고 불렀다.⁷⁷⁾
- ② 大王이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만인 永隆 2년 辛巳(681)에 죽으니 遺命에 의해서 東海 가운데 큰바위 위에 장사지냈다. 왕은 평시에 항상 智義法師에게 “나는 죽은 뒤에 나라를 지키는 大龍이 되어 불법을 崇尚하고 나라를 수호하려 한다.”고 말했다.⁷⁸⁾

문무왕의 유언은 실제 시행되어 화장한 뒤 東海中 바위에 장사지내니, 그것을 大王岩(石)이라고 하였으며, 또 신라인들은 물론 후대인들도 그가 龍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고 숭배하였다. 문무왕을 비롯한 신라인들의 이와 같은 해양을 통한 국가방위와 호국의식은 통일과정에서 백제부흥군과의 전쟁, 그리고 당과의 해전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이미 앞에서 약간 언급하였듯이, 백제 멸망과 백강 전투에서 패전 후 일본열도로 망명간 백제유민을 포함한 왜세력이 동해와 남해 바다로 침략할 것에 대비하면서, 아울러 당의 서해 바다로 침공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상 문무왕의 해양의식은 아주 특별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생전에 삼국통일을 이루면서 직접 해양활동과 해양을 무대로 한 전투를 치른 경험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문무왕의 이러한 인식은 해양과 선박을 전담하는 선부를 설치하고 선부령을

76) 高裕燮, 『慶州紀行의 一節(中)』, 『高麗時報』 1940년 8월 1일.

77) 『삼국사기』 권7, 문무왕본기 말.

78)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

임명하여 제도적으로 완비하였다. 하지만 이것에 안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후까지 걱정하고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비장하고도 특별했다. 다시 말해 문무왕의 해양의식은 사후에 바다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발전하였다.

신라 사람의 문무왕에 대한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신문왕대에 이르러感恩寺의 창건, 利見臺와 萬波息笛 설화를 낳았다.

제31대 神文大王的 이름은 政明이고 성은 金氏이다. 開耀 元年 辛巳(681) 7월 7일 즉위했다. 아버지 文武大王을 위하여 東海 가에 感恩寺를 세웠다. 절에 있는 기록에는 이렇게 말했다. 文武王이 倭兵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 創建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龍이 되었다. 그 아들 神文王이 王位에 올라 開耀 2년(682)에 공사를 끝냈다. 金堂 뜰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을 하나 뚫어 두었으니 龍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 遺言으로 遺骨을 간직해 둔 곳은 大王 岩이고, 절 이름은 感恩寺이다. 뒤에 龍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利見臺라고 했다. 이듬해 壬午 5월 초하루(다른 책에는 天授 元年이라 했으나 잘못)에 海官 波珍滄 朴夙淸이 아뢰었다. “동해 속에 있는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합니다.” 왕이 이상히 여겨 日官 金春質(혹 春日)을 명하여 짐을 치게 했다. “대왕의 아버님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三韓을 鎮護하고 계십니다. 또 金庾信公도 33天의 한 아들로서 지금 인간세계에 내려와 大臣이 되었습니다. 이 두 聖人이 德을 함께 하여 이 성을 지킬 보물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만일 폐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 왕이 대궐로 돌아오자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月城天尊庫에 간직해 두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敵兵이 물러가고 病이 나으며, 가물에는 비가 오고 장마 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는다. 이 피리를 萬波息笛이라 부르고 國寶로 삼았다.⁷⁹⁾

이처럼 신라사회에서는 문무왕이 동해의 용이 되었고, 또 金庾信이 불교에서 33天의 한 아들로서 다시 天神이 되어, 이 두 성인이 마음을 같이 하여 三韓을 鎮護한다고 믿었으며, 더구나 이들이 내린 만파식적으로 신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대인들은 문무왕이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동해의 大龍, 즉 護國龍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사실로서 『신라문무왕릉비』에 “火葬을 하라 하니, 그달 초월흘에 화장하여 … 부처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장작을 쌓아 장사를 지내니 … 鯨津(동

79) 『삼국유사』 권2, 기이2 萬波息笛.

해)에 뼈 가루를 날리셨네.”라는 기록이 있듯이, 그의 장례는 실제 화장을 하였으며, 동해 바다에 散骨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당시 신라사회의 정신적 지주인 불교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라 삼국통일의 정신적 기반은 護國佛敎이다.⁸⁰⁾ 더욱이 문무왕은 나당전쟁이 한창 치열했던 서해상에서 明朗法師의 文豆婁秘法으로 唐軍을 물리쳤다.⁸¹⁾ 그리고 그는 백제 승려 瓌興을 높이 받들었듯이⁸²⁾ 백제와 고구려의 불교사상을 신라에 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문무왕의 佛力을 통한 국가수호의식은 결국 자신이 생전에 東海口에 感恩寺를 세움으로써 欲鎮倭兵하고자 하였으며, 또 죽어서 직접 大龍이 되어 불교를 숭상하여 왜의 침입을 격퇴하겠다는 유언으로 종결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록 倭라고 표현하였으나, 여기에는 백제멸망 후 왜와 연계하여 신라를 공격할 것으로 여겨진 백제유민 세력에 대한 공포심과 강박감이 포함된 것이라 하겠다.⁸³⁾

그리고 이 유언의 내용을 아들 신문왕이 문무왕을 화장하고 대왕암에 산골하였고, 감은사를 창건하는 것으로써 문무왕의 염원을 효행으로 실천하였던 것이다. 또 護國龍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문왕에게 만파식적을 주었다는 설화로 상징화되었다.⁸⁴⁾ 결국 문무왕의 불교와 해양을 매개로 하는 호국정신은 7세기 삼국의 항쟁과 통일전쟁을 주도하고 완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난한 삶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80) 이기영, 「삼국통일에 기여한 신라불교의 정신」, 『국토통일』 1973년 11월호, 38~39쪽.

81) 『삼국유사』 권2, 기이2 文虎王法敏; 권5, 신축6 明朗神印.

82) 『삼국유사』 권5, 감통7 瓌興遇聖; 김수태, 「백제 의자왕대의 불교」, 『백제문화』 41, 공주대학교, 2009; 박찬홍, 「『三國遺事』 感通篇 ‘瓌興遇聖’조를 통해 본 瓌興의 생애」,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32, 경주시, 2011.

83) 최근 이재석도 문무왕의 유언으로 조성된 대왕암과 감은사의 전승 속에서 신라측에게 남겨진 백촌강전투의 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이재석, 「백촌강 전투의 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57, 2015, 168쪽). 반면 서영교는 이것을 문무왕이 당과 일본이 신라를 치기 위해 동맹군을 형성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괴로워 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였다(서영교, 앞의 책, 아세아문화사, 335쪽).

84) 이와 더불어 문무왕의 鎮倭兵은 신문왕대에는 鎮護三韓意識으로 확대된 듯하다.

IV. 맺음말

필자는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수한 뒤에 선부를 설치하고, 특히 그의 호국정신이 삼국통일과정에서 직접 체험한 해전을 통해 형성된 해양인식과 깊은 연계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문무왕은 통일과정에서 백제 멸망과 백제부흥군 진압시 서해안 금강 하구에서 치른 해전과 나당전쟁시 당 세력을 몰아내고자 당 수군의 상륙을 저지하여 당시 한반도 내지에 주둔하고 있던 당의 육군에게 군수물자 공급과 이들의 합세를 차단한 서해안에서의 여러 차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통일이 가능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무왕의 해전의 중요성과 해양에 대한 인식이 삼국통일후 선박의 수리와 건조 그리고 해양을 관리하는 船府를 설치하였고, 마침내 자신이 東海龍이 되는 유언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사실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통일전쟁을 치루면서 확고해졌다. 아울러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해양과 불교승배의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 역시 문무왕의 해양경험과 해양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문무왕의 해양에 대한 이상과 정신은 그가 일생을 마감하면서 유언하기를 자신을 화장하여 동해에 散骨하면 신라를 지키는 동해의 大龍이 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승화되었다. 이것은 동해를 통한 왜와 백제유민 세력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과 노심초사한 강박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세력의 침공마저도 물리친 문무왕은 아주 강한 신라의 自主性和 天下觀을 강하게 드러냈다. 문무왕은 스스로 신라는 제후국이 아니라 三韓一統을 이룬 天子國이라는 의식을 표현하였다. 아버지 무열왕에게 太宗이라는 묘호를, 어머니 訓帝夫人에게 文明皇后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자신이 황제임을 자부하고, 또 報德國과 耽羅國 등을 제후국으로 편재하여 중앙 황제국의 위상을 가졌다.⁸⁵⁾

85) 김창겸, 「신라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220~221쪽. 또 先代廟에 제후국의 5대조가 아니라 천자국 7대조를 모셨다는 견해도 있다(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016, 302쪽).

참 고 문 헌

- 강봉룡, 「나당전쟁과 해전,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 _____, 「문무대왕의 선부(船府) 설치와 신라선」, 『2017년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자료집2』, 2017.
- 고경석, 「통일 직후 해양체제의 구축과 해양이념의 고양」, 『한국해양사』 II, 한국해양재단, 2013.
- 국립박물관,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1960.
- 권덕영, 「삼국시대 신라의 해양진출과 국가발전」, 『Strategy21』 4,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 김상현,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 『한국사연구』 34, 1981.
- 김영관, 「백강구의 위치와 백강전투」, 『군사』 65, 2007.
- _____,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5.
- 김영심, 「신라-당의 황해횡단항로의 연계와 백제·고구려의 멸망」,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 김창겸, 「신라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2004.
- _____, 「신라의 동북방 진출과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 출항지」, 『사학연구』 101, 2011.
-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 노태돈, 「나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 _____,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두창구, 「만파식적고」, 『강원민속학』 7·8, 1990.
- 박남수,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종묘제 정비」, 『신라사학보』 38, 2016.
-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
- 변인석, 『백제의 최후, 백강구전쟁』, 무공문화, 2015.
-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 _____, 「백강구전투와 신라」, 『역사학보』 226, 2015.
-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 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 신종원, 『한국 대왕신앙의 역사와 현장』, 일지사, 2008.
-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 2, 1985.
- 심정보, 「백강의 위치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2, 1989.
- 윤경진, 「매소성 전투와 나당전쟁의 종결」, 『사림』 60, 2017.
- 이기영, 「삼국통일에 기여한 신라불교의 정신」, 『국토통일』, 1973년 11월.
- 이명식, 「신라 문무대왕의 민족통일 위업」, 『대구사학』 25, 1984.
- 이문기, 「신라문무왕대의 군사정책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 32, 2004.
- 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 90, 2007.
-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병력운용과 전후수습책」, 『중국사연구』 55, 2008.
- 이상훈, 『나당전쟁연구』, 주류성, 2012.
- 이재석, 「백촌강 전투의 사적 의의」, 『한국민족문화』 57, 2015.
- 이종학, 「신라삼국통일의 군사적 고찰」, 『군사』 8, 1982.
- _____, 「문무대왕과 신라해상세력과 발전」, 『경주사학』 11, 1992.
- 이호영, 「대당전쟁」, 『신편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임기환, 「7세기 발해·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세계의 격돌」, 『한국해양사』 I, 한국해양재단, 2013.
- 장충식, 「문무대왕의 위적」, 『신라문무대왕』, 경주군, 1994.
- 정영호, 「석굴 창건과 동해구 신라유적과의 관계」, 『정신문화연구』 48, 1992.
- 황수영, 『신라의 동해구』, 열화당, 1994.
- 木村誠, 「文武大王代の 對倭關係」, 제18회 신라문화학술회의 발표문, 1999.8.30.
- 新川登龜男, 「入唐求法諸相」, 『日本古代の對外交渉と佛教』, 吉川弘文館, 1999.
-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1974.
-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2, 吉川弘文館, 1951.

Abstract

A Study on Ocean Consciousness of King Munmu in Silla

Kim, Chang-Kyum*

This paper analyses patriotic consciousness of 30th King Munmu in Silla toward ocean. Furthermore He gave considerable thought to awareness of worship to Buddhism. For example, even after his body was cremated and scattered in the East Sea, according to his will, he described himself as a dragon in the East Sea(東海) that is to protect **Silla**.

As it illustrated above, King Munmu has his own specific ocean consciousness. it was proved by the fact that he made the system for shipping business, called '**Sunbu**'(船府).

It exams if the consciousness was caused by his obsessional emotion about the Baekje(百濟) people and Japanese invasion.

Key words : King Munmu, Ocean consciousness, Patriotic spirit, Dragon in the East Sea, Sunbu

* Head, Division of cultural Content Compliat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교신 : 김창겸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E-mail : kimck@aks.ac.kr)

논문투고일: 2017. 08. 31

심사완료일: 2017. 09. 22

게재확정일: 2017. 09. 24